

그·날·의·도·로

국내 최초의 현수교, 남해대교 이야기

남해군 설천면과 하동군 금남면을 이은 남해대교는, 1968년 착공해 1973년 6월 22일 문을 연 대한민국 최초의 현수교다. 섬과 육지를 잇는 연륙의 염원을 현실로 바꾸며, 남해도의 지리적 고립을 끝내고 남해·하동·여수·부산으로 이어지는 교통·물류의 동맥을 열었다. 지금도 붉은 실루엣으로 바다와 하늘을 가르는 이 다리는 '길의 시대'를 선언한 상징물이다.



- 1 남해대교 500m 옆에 2018년 9월 개통한 노량대교가 있다
- 2 남해대교 개통식에 참석한 국민들(1973년 6월 22일)
- 3 현대건설이 케이블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장면(1972년)

기술적으로도 남해대교는 우리 도로사의 이정표였다. 총연장 660m, 주경간 404m의 3경간 2хин 보강형 현수교로, 강상형(스틸 박스거더) 상판과 해상 오픈 케이스 기초 위 H형 강재 주탑으로 시공되었다. 수심이 깊고 조류가 센 노량수도에 서의 가설은 당시 국내 기술과 시공관리의 한계를 시험한 도전이었다. 이 다리의 개통은 '현대식 장대교량'을 통한 국토 연결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었고, 이후 전국 랜드마크 교량건설의 디딤돌이 되었다.

남해대교의 자리 또한 역사와 맞닿아 있다. 다리 아래 노랑 바다는 임진왜란 최후의 격전지로, 이순신 장군이 장렬히 전사한 곳이다. 과거의 바다를 건너 전해오는 충무공 이순신의 이야기를 통해 '기억 위에 놓인 남해대교'를 밟는다.

2018년 9월, 남해대교 500m 옆에는 더 긴 주경간과 우수한 교량 건설기술을 가진 노량대교가 개통하며 옛 명성을 돌아주게 되었지만, 남해대교는 여전히 한려해상 풍경 속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현수교로서 존재감을 지키고 있다. 첫 현수교가 열어젖힌 기술과 교통을 넘어 관광의 문은 지금도 활짝 열려 있다.

그날, 남해대교 건설은 오늘날 도로인의 역사적 귀감이다. 🇰🇷

출처 및 참고자료:
©국가기록원, ©한국우표포털